

## 보 도 설 명 자 료

(‘13. 4. 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서울경제 “설익은 석유전자거래 무역흑자 1조 날렸다”,  
전자신문 “수입우대하는 역차별 유가정책”  
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(‘13.4.8)

### 1. 보도내용 (‘13.4.8, 서울경제·전자신문)

- 석유전자상거래가 당초 목표인 기름값 인하효과는 없이 수입을 우대하는 역차별정책으로 무역수지만 악화시켰음(‘12.4~‘13.2월 경유 수입 9,421억원)
- 수입제품에 부여한 인센티브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중간 유통과정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세금을 들여 대기업 배불리고 있음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

- 저렴한 물류비로 인해 전자상거래용 수입경유의 대부분이 일본산이나 최근 다변화되고 있으며 일본산 경유를 비싸게 사오는 것은 아님  
\* ‘12년은 전량 일본산이었으나, ‘13년 1월이후 싱가포르, 말련, 중국에서도 수입
  - 對日 수입단가는 수출단가에 비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음  
\* 수입단가 - 수출단가 = -7 ~ +9 (\$/B, FOB, ‘12.4~‘13.2월)
  -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라 가격인하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며, 조기 안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
  - ‘13.1월말 등록참가자수 1,397개로 ‘12.6월 452개 대비 3배 이상 증가  
\* (‘12.6) 정유사 4, 수출입사 7, 대리점 61, 주유소 380  
(‘13.1) 정유사 4, 수출입사 15, 대리점 133, 주유소 1,242, 일반판매소 2
  - 전자상거래가격이 정유사 공급가대비 약 55원/L 저렴하여 수입 인센티브 약 44원/L\* 이상으로 가격이 인하되었으며(‘12.7~‘13.1, 경유)  
\* 할당관세 약 14~27원/L, 수입부과금 16원/L, B/D면제 10원/L  
- 구매 주유소(7~12월), 대리점(10~12월)은 인센티브의 약 80%를 가격인하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
  - 저렴한 전자상거래가가 시장의 기준가격으로 인식되어 주유소와 정유사간 협상시 주유소의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
- 과거에는 월초(1~3주)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월말에 가격이 할인되었으나 최근에는 월말 할인가격이 앞당겨 적용되는 현상 나타남
  - 향후 정유사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전자상거래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임
- ※ 자료문의 : 석유산업과 강경성 과장, 김형석 사무관(02-2110-5457)